

肥滿症

비만은 선진국에선 가장 흔한 대사성질환으로 이는 음식물의 과잉 섭취와 운동부족으로 생기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향상으로 점차 심각한 문제로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대부분의 봉급 생활자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정신적인 긴장을 운동이 아닌 술이나 과식으로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음식물의 과잉 섭취 경향이 있고 과거의 곤란했던 때를 상기하여 자기와 자손들에겐 배고픔을 주지 않으려는 심정으로 음식 및 간식의 과잉 섭취가 자신과 어린이의 비

만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과거의 저칼로리 고섬유질의 음식에서 식생활의 습관이고 칼로리 저섬유질의 음식으로 서구화하는 경향이 있어 같은 양의 음식으로도 칼로리의 과잉 섭취가 된다.

비만은 이상체중의 20%를 초과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상체중은 키,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키 - 100) × 0.9의 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상체

을 호소한다. 요컨대 비만은 하나도 이로운 것이 없으며 무엇인가 하나라도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비만은 두 종류로 나누어 지방세포의 수가 증가하는 증식형의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비대형으로 나눌 수 있다. 지방세포 비대형은 가장 흔한 비만의 형태로 어렸을 적엔 마른 편으로 지내웠으나 나이가 들면서 수입이 많아지고 운동이 부족하여 생기기 시작하는 것으로 비만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주로 복부, 등등부 등이 뚱뚱한 형이고 치료를 하면 잘 반응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뚱뚱하다. 그리고 대개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아 식사를 절제하고 운동을 격렬하게 하여 몸무게가 많이 감소된다하더라도 어느 시기가 지나면 다시 원래의 체중으로 복귀하기 때문에 치료가 아주 힘들다.

따라서 비만은 치료보다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한가지 예로 아무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땅콩 20알은 약 90칼로리의 열량을 낼 수 있는데 이 정도의 열량을 소모시키려면 보통 몸무게의 성인이 정구(단식)와 축구를 15분가량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만큼의 운동을 하면 몸무게는 15그램이 줄어든다. (이것은 수분의 감소가 아니고 비만은 지방의 증가이기 때문에 순수한 지방의 감소로만 따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엄청난 양의 운동을 해야 몸무게는 조금 줄어드는 형편이며 조금이라도 먹는다면 체중은 다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일단 비만이 생기면 초기에 관심을 갖고 치료해야 하며 어느정도 진행이 된다면 이상체중대로의 복귀가

林慶浩

<仁濟醫大>
内科學교실

식간에 때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우기 어린이 비만이 늘고 있는 요즈음은 이런 어린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비만의 합병증을 피할 도리가 없고, 이 때는 이미 늦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린이의 비만은 그 부모들의 책임이며 비만해지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비만의 치료는 음식물의 섭취와 운동을 균형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식사는 그 구성성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의 총열량을 줄이되 균형 있는 식사를 함으로 비타민이나 무기질의 결핍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복감을 많이 느낀다면 체소 A군을 보다 많이 섭취하여도 좋다. 이는 열량이 많지 않고 섬유질이 풍부하므로 공복감을 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일 매일 규칙적으로 자신에 맞는 운동을 함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예방과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治療보다予防이先決課題

이상체중의 20% 이상超過말아야

중이란 그 나이에 그 키에 가장 적합한 체중으로 대사뿐만 아니라 관절등의 물리적인 면에서도 또 외관상으로도 가장 이상적인 체중이라 하겠다. 그러나 꼭 그 체중만을 유지한다는 것이 어려우므로 위아래로 10%를 잡아 그 사이에 위치한 사람은 정상이며 10~20%는 과체중, 20% 이상은 비만으로 정의하고 있다. 예로 60kg이상체중인 사람은 54kg에서 66kg까지는 정상으로 66~72kg은 과체중으로 72kg이상은 비만으로 정의하고 있다.

비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로인해 생기는 합병증때문인데 우선은 심혈관계통의 합병증으로 고혈압, 동맥 경화증, 고지방혈증, 등과 더불어 혀혈성 심장질환이 잘 호발한다. 호흡기계통에선 저산소증폐동맥 고혈압 등이 오며 소화기 계통에선 지방간, 담석증 등이 잘 생긴다. 당뇨병도 호발하며 요즈음 당뇨병의 증가 추세는 비만과 관련되어 설명되어지며 비만한 당뇨환자에서 비만을 치료하면 혈당이 잘 개선됨을 볼 수 있다. 그 외에 관절염도 흔히 동반되며 임신증후군 등도 잘 생길 수 있다. 전반적인 비만환자에서는 느끼는 증상으로 피곤을 쉽게 느끼고 일에 의욕이 없어지며 사무능률이 떨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다는 등의 불편함

그러나 지방세포 증식형도 어려서부터 대개 사춘기를 전후하여 풍등해지기 시작하고 비만의 정도가 극심하여 지방세포의 분포가 전진적이기 때문에 가슴, 배, 둔부가 뚱뚱할 뿐만 아니라 얼굴, 손가락, 발가락까지 모두

매우 힘들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런 비만은 급격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몇 달 혹은 몇 년에 걸쳐 서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식생활 습관이라든가 생활환경, 사고방식 등이 고정화되어 이런 생활 리듬을 순

비만은 이상체중의 20%를 초과하는 것으로 정의하는데 이상체중은 보통(키 - 100) × 0.9의 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진은 본문 특집기사와 관련없음)



◆ 入会節次

◆ 事業

1. 正会員 =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고 이에 참여하는 성인병 관계학자 및 전문가 또는 협회 발전에 功이 있는 者
2. 成人病에 관한 연구 조사 및 기술의 평가
3. 成人病에 관한 의약품의 연구개발
4. 成人病에 관한 의약품의 연구개발
5. 成人病 진료를 위한 전문의료기관의 설치운영
6. 成人病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연구 및 성인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
7.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최근 경제성장에 따른 식생활의 변화와 더불어 급격하게 증대되고 있는 成人病(암·당뇨병·고혈압·심장병·뇌혈관 질환·간경변증·만성간장염·비만증등)은 사회 각계에서 중견으로 활약 중인 40~50대에서 주로 발생하여 개인적 및 국가적인 차원의 인력자원 손실을 초래함으로써 바야흐로 사회 적인 중대문제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는 成人病의 예방 및 치료 기술을 개발하고, 지도계통을 통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바,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正会員 = 入会費 1만 원, 年間会費 2만 원
特別會員 = 入会費 10만 원, 年間会費 12만 원
half會員 = 入会費 1만 원, 年間会費 1만 2천 원
(입회시는 입회비 및 연간회비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사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주소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8-2 (서대문우체국 6층 603호) ● 전화 = 392-4744

사단 한국성인병예방협회
회장 李文鎮

회원入會안내